



KIA 양현종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에서 MVP가 발표되자 시상대로 향하고 있다. 양현종은 처음으로 정규리그 MVP와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연합뉴스

**KIA 양현종 기자단 투표 856점 만점에 총 656점 획득
'홈런 1위' SK 최정 362점차 따돌려 "이 꿈 깨지 않길"**



2017 KBO 시상식

넥센 이정후 신인왕 수상

"이 꿈이 깨지면 좋겠다"는 소감처럼 KIA 타이거즈 양현종에게는 꿈같은 최고의 한 해다.

양현종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했다.

양현종은 기자단 투표 결과 856점 만점에 총 656점을 획득하면서 294점의 '홈런 1위' 최정(SK 와이번스)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누르고 MVP가 됐다.

한국시리즈 MVP에 이어 정규시즌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며 양현종은 KBO리그에 새 역사를 썼다. 출범 36번째를 맞은 KBO리그에서 정규리그 MVP와 한국시리즈 MVP를 동시에 수상한 사례는 양현종이 처음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3.44의 평균자책점으로 20승 6패를 기록했다. 지난 1995년 이상훈(LG 트윈스) 이후 투중 선수로는 22년 만에 나온 선발 20승이다. 팀 동료인 헥터 노에시까지 20승 고지를 밟으면서 32년 만에 '공동 20승'까지 기록했다.

역사적인 20승으로 다승 공동 1위를 차지한 양현종은 승률 2위(0.769), 평균자책점 5위, 탈삼진 3위(158개)의 성적을 내면서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됐다.

양현종은 "꿈같은 한 해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팀 대표로 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KIA 팬들을 환호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있었다.

양현종은 "꿈같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다. 이 꿈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에(KIA 허영택) 단장님도 계시지만 KIA 팬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해 KIA 팬들의 환호성을 끌어냈다.

한편 이날 2017 신인상은 예상대로 '바람의 손자' 이정후(넥센 히어로즈)의 차지가 됐다.

이종범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인 이정후는 올 시즌 정규시즌 144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 2홈런, 47타점, 111득점, 12도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인상을 받은 넥센 이정후(왼쪽)와 MVP를 차지한 KIA 양현종. /연합뉴스

KIA "시상식 주인공은 나야 나"

'2017시즌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KBO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됐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이 열렸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며 통합 우승을 이룬 KIA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들을 호명한 KBO 시상식에서도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헥터와의 공동 다승 1위로 시상대에 올랐던 투수 양현종은 마지막 최고의 선수를 뽑는 순간에도 이름이 불리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장식했다.

MVP 1위 양현종을 필두로 3위부터 5위까지도 KIA의 몫이었다.

기자단 투표 결과 856점 만점에 총 656점을 획득한 양현종에 이어 SK의 '홈런 왕' 최정이 294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헥터(208점) 최형우(166점) 김선빈(141점)이 뒤를 이었다.

개인 부문별 수상자 선수 명단에도 KIA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다승상의 헥터는 출루율상 수상자라도 호명됐다. 또 김선빈(타율상), 버나디나(득점상), 최형우(출루율상)도 부문별 수상자로 박수를 받았다.

'해결사'로 정규시즌 1위를 이끈 최형우는 "올 한해 참 많은 것을 이뤘다. 우리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열정적인 KIA 팬들 덕분에 행복한 시즌을 치렀던 것 같다. 내년에도 행복한 시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반에 아쉽게는 마무리가 잘 되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을 만들 수 있었다. 우승했으니 올 시즌 내 점수는 100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웃었다.

출국을 미루고 시상식에 참가한 버나디나는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KIA 선수들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우리 팬들 대단하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주셨

**MVP 투표 결과 톱5에 4명 포진
헥터·김선빈·버나디나·최형우 개인 부문 수상**



헥터 다승상·승률상 MVP 3위·208점 / 최형우 출루율상 MVP 4위·166점 / 김선빈 타율상 MVP 5위·141점 / 버나디나 득점상

고, 어디를 가도 많이 응원해주셨다.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버나디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응원가를 부르며 팬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간 헥터와 7일 발목 수술을 앞둔 김

선빈은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했다.

김선빈은 메시지를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수술로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김기태 감독님과 코치님, 동료들 덕분이다. 건강하게 회복해서 내년엔 좋은 모습 보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척돔서 축구해요

홍명보 장학재단

내달 19일 자선축구경기

야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펼치는 이색적인 모습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홍명보 장학재단은 6일 "다음 달 19일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홈 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자선축구경기 '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고척 스카이돔 외 야 잔디에 미니 축구장을 만들어 8대8 이벤트 경기를 펼칠 예정"이라며 "정식 규격은 아니지만, 야구장에서 펼치는 축구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장을 개조해 다른 종목 경기를 펼치는 일은 외국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미국에선 일 년에 수차례씩 야구장을 개조해 축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경기 등을 치른다.

일본에서는 아예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과 프로축구 콘사도레 삿포로가 삿포로돔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평소엔 야구장으로 활용하다가 외부에 있는 축구 잔디를 경기장 안쪽으로 끌어들이 축구장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다목적 경기장으로 건설됐던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1990년대 초까지 고고 축구가 열렸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전국에 대규모 축구장이 많이 건설되면서 야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펼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야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펼칠 주인공들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

오늘 염주체육관서

제12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가 7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구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체육을 활성화하고 노후 대비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축제는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마당, 화합마당, 문화마당 순으로 펼쳐진다.

5개 구별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5000여명의 어르신 선수들은 단체 율라우프, 판 뒤집기, 테니스공 국자릴 레이, 오자미 날기 등에서 신명 나고 유쾌한 한마당을 벌일 예정이다.

또 조정기수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구별로 준비해 온 장기지팡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숨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체육회는 "12년째 성장하고 있는 어르신 축제는 국민건강 100세 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운동회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게끔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역대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기록

손흥민 (토트넘, 2015~현재)	20골 (17경기)	역대 아시아 선수 최다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5~2012년)	19골 (154경기)	
기성용 (스완지 시티 스왈로우, 2012~현재)	13골 (145경기)	

손흥민 EPL 통산 20호골...박지성 넘었다

크리스털 팰리스전 결승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는 손흥민이 EPL 통산 20번째 골을 터뜨렸다. '레전드' 박지성이 갖고 있던 기록을 넘어선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정규리그 최다 골이다.

손흥민은 5일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

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정규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8분 왼발로 결승골을 꽂아넣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3호골이자, 정규리그 2호골이다. EPL 통산으로는 20호골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해리 케인과 함께 투톱 공격수로 나섰다

만 이렇다 할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던 손흥민에게 후반 18분 기회가 찾아왔다.

골대 정면에서 토트넘 대니 로즈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이를 오른쪽에 있던 무사 시소코가 잡아 골대 정면으로 올려준 것을 또다시 수비수가 견어내자 페널티아크 안에 있던 손흥민이 골장 왼발로 강력

하게 골대로 꽂아넣었다.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해 손을 뻗어봤으나 공은 손 쓸 틈도 없이 왼쪽 골망을 흔들었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된 손흥민은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정규리그 최다골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첫해인 2015-2016시즌 정규리그에서 4골을 넣은 데 이어 지난 시즌에 14골을 터뜨렸다. 14골은 기성용(스완지시티)이 갖고 있던 아시아 선수 EPL 한 시즌 최다 골(8골)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외에도 컵 대회 6골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까지 모두 21골로, 차범근 감독의 한국 선수 유럽 리그 한 시즌 최다 골(19골) 기록도 31년 만에 새로 썼다. 주로 미드필더로 뛰던 박지성은 2005~2012년 맨유 소속으로 EPL에서 7시즌 동안 153경기에 출전해 19골 25도움을 기록했다.

한편 손흥민은 "박지성님 여전히 내 우상이고 레전드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선수다. 난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